

제 2장 다신에서 유일신으로

A. 주제(Thesis)

2장은 유일신 사상이 어떻게 그리스도교의 근본적 유산으로 자리잡게 되었는가의 연구이다. 그리스도교의 신학의 근본이 되는 신성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하고, 문화와 과학의 발전속에서 종교에 요구되는 신성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둔다.

B. 문제점(Problems)

- 신이 하나인가 여럿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신의 본질이나 신성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 고대 종교의 신의 대한 인식과 구약 성서의 몸체의 하느님 즉, 신이 신체를 갖고, 하늘 꼭대기 보좌에 앉아, 잠도 안자고 질투하는 신, 인간에게 화를 내는 신의 모습은 더 이상 신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함을 느낀다.

C. 논점(Argumentation)

1. 고대 근동의 종교

- 저자는 고대의 모든 문화는 세상의 시작이 신에 의해 “창조된”것으로만 여기지 않았으며, 특히 그리스인들의 세계는 땅, 하늘, 바다 및 다른 자연 현상들은 카오스에서 스스로 생겨났다고 말한다. 하느님과 카오스는 태초에 공존한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초기 신들은 태초에 물질로 존재한 것으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보았다 (예: 플라톤, 헤시오드, 에누마 엘리쉬...등 pp.49-51).
- 신에 대한 이해: “신들은 하늘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실체적이며 물질(substance)적인 존재이다.” (p.53)
- 각각의 공동체 집단에 그 나름의 수호신을 섬겼는데 이것은 단일신론(henotheism), 일신숭배(monolatry): “다른 민족들의 신들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면서도 한 민족이 하나의 신만 예배하는 행위를 뜻한다” (pp.57-59). 단일신론, 일신숭배는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종교양식이었고, 이스라엘 또한 같았다 (출 20:2-5).

2. 유일신론의 종류

유일신론은 제국을 건설하고 보존하거나 정치적 독립을 잃은 것에 대한 상실감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유일신론 종교들의(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위대한 하느님을 말하기 위해 비유일신론적인 세계관(군주적 다신론)의 개념을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최고 신의 승리!!(p.61)

- 포괄적 유일신론

- 신이 속성을 동일시하고 흡수 동화시켰다. 최고 신은 어떤 모양으로든 다른 신들 속에 표현되어 있다가 점차 사라진다. 지위가 낮은 신들은 최고 신의 종(servant)이었다 (수메르 신들, 앗수르, 마르둑 p.63-66 참조).

- 배타적 유일신론

- 첫째, “단 하나뿐인”(one and only) 위대한 신! 다른 신은 없다. 둘째, 기원전 2천년기 말 (2000년-1001년) 페르시아에서 발생, 조로아스터교가 자신의 신 외에는 모든 종교와 신들을

악마의 세력으로 규정. 셋째, 기원전 14세기(1400년-1301년) 이집트가 아케나톤의 통치하에서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기념비에서 신들의 이름을 삭제시킴 (사 45:5).

- 그리스도교는 유일신론을 따르지 한참 후에 논의와 논쟁을 걸쳐 대공의회에서 삼위일체론이라는 유일신론을 주창한다.

3. 그리스 과학과 모나드

- 천문학자들과 수학자들의 노력으로 인해 우주의 새로운 이해와 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야 했다. 이런 과학적 진척은 고대 하느님의 이해와 구약의 창조설화의 맹점을 파고들어 창조의 원천인 신들, 플라톤이 얘기했던 “선”을 잃고 격분할 수 있던 신들, 구약성서에서 사람(아브라함, 모세…등)에게 나타난 몸체의 하느님을 다시 생각하게 했으며, 창세기 6-8장에 언급된 이야기의 불가능함을 역설한다 (“아포파시스 신학” 플라톤의 “선”의 영향 등 pp.77-78).
- 이러한 상황속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로 인식되어야 했던 하느님,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는, 즉 한 장소에 있지 않고 하느님 곁이나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만물이 하느님 안에 놓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존재여야만 했다. 신은 영적이며 “선”을 잃을 만한 열정이 없는 냉정한 근원으로 오직 중재자를 통해서만 “창조”한다는 하느님의 개념으로 만물의 원천이고 무한하며 비물질적인 하느님, 모나드(Monad: 단자, the one, 그리스어로서 ‘오직 하나’) 개념이 생겨났다.
- 그리스 사상을 성서에 적용해 본 영지주의 문서들의 유대인 저자들은, 우리가 앞서 발견했듯이, 구약 성서의 하느님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 신에 대해 이런 고민들은 신약성서가 기록되던 시대에 여전히 논쟁 거리였다. 그로 인해 신들에게 물질을 바치는 예배를 이끌던 제사장들의 역할이 박탈당했고, 신약성서에서는 몸체를 갖고 있지 않는 본래 영원하고 스스로 계시는 모나드, 하느님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딤후1:17, 딤후6:16, 요한1:18).
- 마지막으로 저자는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로고스 역할을 하는 예수를 통해 일(the one)자가 다수(the many)가 되는 과정에서 인식 할 수 있다고 본다 (마11:27, 눅19:22).

D. 평가(Critique)

신들의 이해에 대한 고대 종교들의 관점과 철학, 신에 대한 그리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등 여러 자료의 비교 분석은 실로 엄청났다. 또한, 저자의 말대로 구약(히브리) 성서의 하느님의 모습은 무색해지며, 몸체의 하느님 이해는 과학 발전에 의해 빈약함을 드러냈다. 과학의 발달에 따라 하느님의 신성의 전환과 “모나드”라는 새로운 신성의 개념이 등장함으로써 신약 시대까지도 미치게 되는 영향을 볼 수 있었다.

□ 생각해 보기

1.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는 하느님은 어떤가? 고대근동 or 모나드?
2. 오늘날 예수를 통해 다수(the many)가 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3. 그렇다면 다수가 된 사람들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